# 여름방학 쉼표 하나 "대학생들 독서휴가 어때요

## 지역 대학 독서 캠페인 활발 전남대·동신대, 10권씩 추천 동강대, 전자책 다독자 시상

취업 3종 세트(학벌, 학점, 토익점수)는 기본이다. 여기에 더해 취업 8~9종 세트 까지 채우려고 아르바이트 뛰고, 휴학하 며 공모전 입상, 봉사활동, 인턴 생활에 목 숨건다.

이들 학생들에게 방학이라고, 여름 휴 가철이라고 달라질 건 없다. "한가하게 책 읽을 여유가 어디 있느냐"는 말이 나올만 하다. 하지만 바쁜 학교 수업 일정에 쫓기 지 않고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

지역 대학들도 이 시기, '독서휴가' 를 권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.

조선시대, 독서를 통해 인재를 길러내 려는 취지에서 휴가를 줘 책을 읽도록 한 '사가독서'(賜暇讀書)와도 닮았다.

◇전남대, 여름철 책읽기 시동=전남대 가 진행중인 '2016 광주·전남이 읽고 톡 하다(이하 광주·전남 톡)'는 사실상 '독서 휴가'를 권장하는 캠페인이나 다름없다. 시기적으로 여름 휴가 시즌과 맞물리다보 니 지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'독서휴가' 를 권하는 셈이다.

전남대는 최근 1년간 지역민들과 함께 읽을 '한 책' 을 선정하고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, 곁들여 읽어볼 10권의 책도 '동반 도서'로 꼽았다.

전남대가 추천한 동반도서는 ▲강산무



전남대 추천 도서

진 ▲김대식의 빅퀘스천 ▲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▲눈먼 자들의 국가 -세월호를 바라보는 작가의 눈 ▲미움 받 을 용기 ▲소년이 온다 ▲왜 분노해야 하 는가 ▲조선을 섬긴 행복 - 서서평의 사랑 과 인생 ▲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 식 - 역사, 경제, 사회, 윤리 편 ▲3년 후, 한국은 없다 등 10권.

임환모 전남대 도서관장은 "동반도서들 을 읽으며 사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"고 말했다.

◇동신대, 휴가철 10권 읽기운동=동 신대는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에 맞춰 '방 학기간 10권 책 읽기' 캠페인을 벌인다. 대 표적 인성 프로그램인 'Jump Together 123 프로젝트'에 따라 진행하는 '한 달 3권 이상 책읽기 운동'을 여름방학과 휴가 시 즌에 확대한 게 특징이다.

동신대가 방학·휴가 기간 학생들에게 읽어볼 것을 권하는 도서는 ▲김미경의 인 생미답 ▲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 ▲미친 교수의 헬수업 ▲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 ▲효율적 이타주의자 ▲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▲옥스브리지 생각의 힘 ▲총, 균, 쇠 ▲카오스 ▲행복의 비밀 등 10권이다.

동신대는 아울러 직원들로 구성된 독서 클럽을 결성, 여름 방학기간을 활용해 7월 부터 독서와 토론 시간을 갖는다는 구상이 다.

◇동강대, 바쁘면 전자책도=동강대는 전자책을 활용, 학생들의 독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. 동강대는 최근 전자책 대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독자를 선정, 시상하 는 한편, 10월 축제 때도 전자책 다독자를 뽑을 계획이다. 여름 휴가길에 전자책을

챙겨가는 것도 권한다. 동강대 보유 전자 책은 1만8000여권이다.

동신대 방학기간 권장 도서

전자책은 도서확보 및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책을 빌 려볼 수도 있는데다, 휴대전화로 이용하 기 수월해졌다는 점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.

◇대학생, 학교 도서관서 얼마나 빌려 보나=한국교육학술정보원(KERIS)이 펴낸 '2015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'집에 따 르면 대학생 1명이 대출한 도서는 평균 7. 4권이다. 지역 대학별로는 국립대로는 전 남대 재학생의 1명당 대출 도서가 11.6권, 목포대 3.6권, 순천대 6.7권으로 나타났다.

조선대는 5.0권. 광주여대 3.4권, 동신대 3.1권, 목포해양대 2.0권, 광주대 1.6권, 초 당대 1.6권, 호남대 1.4권 등이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#### 지난해 광주·전남 대학생 1인당 대출 도서 권수

	〈단위:권〉
전국 평균	7.4
광주대	1.6
광주여대	3.4
동신대	3.1
목포대	3.6
목포해양대	2.0
순천대	6.7
전남대	11.6
조선대	5.0
초당대	1.6
호남대	1.4

〈자료:한국교육학술정보원〉

# 전남대 '시끌' 교수 채용 교육부 특감 요청

직선제 촉구 1인 시위 검토

전남대가 시끌시끌하다.

정치외교학과 교수 채용 문제와 관 련, 교육부에 특정감사를 요청하는가 하면, 지병문 총장의 '총장 직선제 재 검토' 입장에 반발하며 교수 1인 시위 가 검토되고 있어서다.

27일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등에 따 르면 윤성석 교수 등은 최근 신규 교 수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공문서 위조 의혹 등과 관련, 교육부에 특정 감사 를 요청했다. 정외과 발전위원회 등은 앞서 광주지검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 는 고발장을 낸 바 있다.

이들은 학과 교수들간 합의가 이뤄 지지 않았음에도 교수 공채 인원이 정 해진 과정에서의 총장 월권 행위에 대 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

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도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. 전남대 교수회(회장 김영철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)는 28 일 긴급 평의원회를 열고 지병문 총장 의 '직선제 재검토' 입장과 관련,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. 구체적 대응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수 총투표를 거 쳐 제안한 '총장 직선제'를 받아들이 지 않은 데 항의, 교수들이 돌아가며 1 인 시위를 펼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 으로 전해졌다.

한편, 조선대 교수회는 이날 오후 4 시부터 대의원회를 열고 총장 선출과 관련, 이사회의 '구성원별 참여 비율' 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

〈호남대 제공〉

## 해외 연수부터 국토 장정까지…대학 방학 프로그램 없는 게 없네

광주·전남 대학가가 여름방학에 들어 가면서 대학생들도 분주해졌다. 본격적으 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을 수 있 어서다. 대학들도 연수·봉사활동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돕고 있다. 초·중· 고등학생을 위한 캠프도 운영한다.

◇조선대, 세계 곳곳 연수·문화체험 지원=조선대는 재학생들의 해외 교류 활동을 위해 10개 안팎의 프로그램을 마 련, 지원하고 있다.

학생들 스스로 짠 계획서를 토대로 평 가한 뒤 일정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을 비롯, 모든 해외 교류 프로그램은 참 여 학생이 많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.

당장, 23명의 재학생들은 일본 시즈오 카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하는 어학연 수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 회를 얻게 돼 27일 출국했다.

조선대는 아울러 학생 스스로 중국・일 본, 유럽·호주 등 나라를 선택한 뒤 직접 문화·언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, 지원받는 '셀프 디자인' 프로그램을 마련, 재학생들의 글로벌 능력을 키우고 있다.

◇광주대, 취업프로그램 눈길=광주 대는 방학 기간,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 화에 힘을 쏟는다.

광주대는 광주·전남 기계공업협동조 합과 연계, 인문사회계열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열고 고 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연수지 원 연계 사업으로 '중소기업 취업캠프'를 진행한다.

제주도 일대를 둘러보는 국토순례 프로 그램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진행된다.

◇GIST·동신대, 전공 살린 연수·봉 사=광주과학기술원(GIST) 학생 16명 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의 협력 사업인

'IT 봉사단 파견 프로그램'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한달간 동유럽 국가인 몰도 바를 찾아 초·중·고교생과 마을 주민들 을 대상으로 한 IT 교육, 문화 교류 활동 을 펼친다.

동신대 학생 38명은 오는 8월 14일부 터 10일간 자매결연대학인 베트남 벳찌 산업대학교와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진료・미용 봉사 활동에 나선다. 동 신대는 또 특성화사업단인 웰에이징메 디스파 창의인력양성사업단을 통해 물 리치료학과 · 뷰티미용학과 학생들의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태국 연수를 지 원한다.

◇호남대, 초·중학생 인성 함양 캠프 =호남대는 방학 기간, 광주·전남 초·중 학교 학생들을 위한 '인성힐링캠프'를 운

문화예술교육원 주도로 진행되는 '아



지난해 조선대 '셀프 디자인' 프로그램 으로 해외 교류 활동에 나선 학생들.

〈조선대 제공〉

트인성 힐링캠프'는 대흥사·백양사·화 엄사·송광사에서 7월 말부터 지역 초·중 학생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. 자



호남대가 지난해 진행한 '아트인성 힐링캠프'

연 속 산사에서 차담·명상, 힐링콘서트, 공예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보 다 상생·배려하는 인성·문화예술 교육 을 실시한다. 광주·전남 교육청 지원을 받아 무료료 진행된다.

이외 전남대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 기 위해 7개국 9개 학교에서 진행하는 11 개 프로그램을 마련, 60여명을 선발해 해 외 연수를 진행한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

